

호주 쇠고기 생산 동향 *

이 형 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1. 서론

과거 호주의 쇠고기 산업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였다. 최정섭·임송수(1996)는 호주 쇠고기 산업의 역사와 여건, 공급과 수요, 수익성, 유통, 수출 등 쇠고기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민국(2005)은 호주의 쇠고기 생산, 소비 그리고 수출에 관한 현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호주 쇠고기 산업의 중장기적 추세와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허덕(2005)은 국내 축산물 생산 유통의 이력추적제(Traceability System)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호주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세계농업」을 통해 호주의 쇠고기 산업과 관련한 보고서가 다수 발간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12월 5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축산농가와 관련업계가 향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국 간 FTA 협상 타결로 한·호주 FTA가 2015년부터 이행될 경우, 쇠고기의 경우 매년 2~3%씩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에는 현재 40% 수준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축산농가에서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가 자칫 국

* 본고는 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및 일본 농림수산성의 해외농업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번역 및 정리한 내용임 (lhw0906@krei.re.kr 02-3299-4309).

내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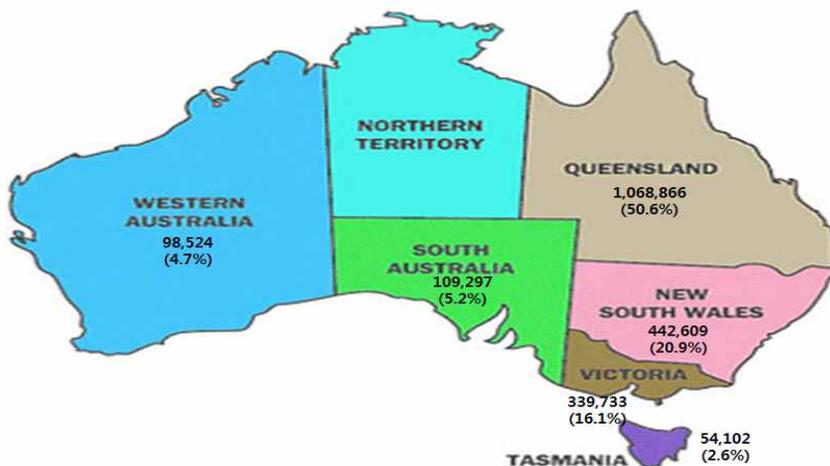
국내에서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 1위인 점을 감안하면, 한·호주 FTA 타결이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수입 쇠고기 중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 정도(2013년 기준)이며, 이는 미국의 35% 보다 약 20% 가량 높은 수준이다.¹⁾ 국내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존재감은 FTA 타결 이후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호주 쇠고기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호주의 쇠고기 생산과 수출현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호주 쇠고기 생산 현황

호주의 육우 사육지역은 기후와 사육환경 기반의 차이에 따라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부지역은 퀸즐랜드주(QLD), 노던테리토리주(NT),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A) 북부지역이며, 남부지역은 뉴사우스웨일스주(NSW), 빅토리아주(VIC), 태즈메니아주(TAS) 및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A) 남부지역이다.

그림 1 호주 지역별 쇠고기 생산량

단위: 톤



주: 생산량은 지육 중량 기준임.

자료: Meat & Livestock Australia(MLA), Department of Agriculture, Australia(DA).

1) 2013년 국내 수입검역검사 실적 기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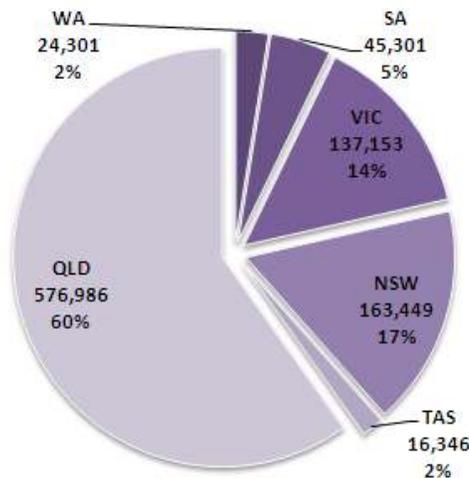
호주는 세계 6위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내륙 대부분은 사막지대이며, 쇠고기 생산 및 수출은 90% 이상이 동부지역인 QLD주, NSW주, VIC주, TAS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QLD주는 2013년 기준 호주 육우의 50%가 사육되고 있으며, 쇠고기 수출의 59%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호주의 육우 사육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방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가뭄으로 초지 생육상태가 악화되면 사료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농가는 확보할 수 있는 목초의 양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암소 도태와 같은 방식으로 사육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호주에서는 가뭄, 홍수 등 기후여건이 육우 사육 마릿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 중 약 47%(2013년 기준)가 수출되기 때문에 쇠고기 생산체계는 수출 대상국과 해외시장의 요구에 반응하기 용이한 구조이다. 이는 호주에서 수출되는 쇠고기의 일정 부분이 곡물로 비육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호주에서 곡물 비육우는 약 70~80만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2013년 2,825만 마리)의 약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출용 도축 마릿수(2013년 약 428만 마리 추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이다.

그림 2 호주의 지역별 수출용 쇠고기 생산 비율

단위: 톤



주: 생산량은 지역 중량 기준임.

자료: MLA(Meat & Livestock Australia),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원래 호주의 육우 곡물 비육은 가뭄으로 초지 비육이 곤란한 경우 활용하던 방법이 었으며, 주로 곡물 생산이 활발한 QLD주 남동부 및 NSW주 남부지역 등에서 발전하였다. 현재는 한국과 일본 이외에도 EU, 중동 국가 등에 곡물 비육우를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 중국 수출도 급성장하고 있다. 호주에서의 육우 비육은 목초지에서 1차적으로 사육한 후, 비육장에서 육질을 높이기 위해 곡물비육으로 마무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주의 비육우 마릿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료곡물 가격과 수출국 및 해외시장의 수요 동향을 들 수 있다. 특히, 호주는 방역상의 이유로 곡물 수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육에 사용되는 곡물은 호주 내에서 생산되는 밀, 보리, 수수 등이 주로 이용된다. 호주의 사료곡물 가격은 국제가격 동향 이외에도 가뭄 등과 같은 기후 요건의 변화에 따른 호주 생산량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3. 호주 소 생산 전망

3.1. 사육 마릿수

호주의 쇠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축이 늘어 2013년 호주의 소 사육 마릿수는 2012년보다 2.6% 감소한 2,825만 마리였다. 호주축산공사(MLA)에서는 2014년 사육 마릿수를 2,750만 마리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2012년 최고치였던 2,900만 마리에 비하면 150만 마리가 감소한 것이다. 사육 마릿수 감소폭이 1978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은 NT주 북부, NSW주, QLD주 등 사육 마릿수가 많은 지역의 가뭄 때문이다.

지난 1년 간 호주의 사육 마릿수가 감소한 것은 가뭄의 여파로 인해 폐사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호주축산공사에서는 2013년 사육조건이 악화되면서 번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사육마릿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사육마릿수는 2,835만 마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호주의 소 사육 마릿수는 계절별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2010년과 2012년 중반 강수량이 풍부했던 시기에는 사육 마릿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2010~2012년 평균 증가율 5.3%), 이 기간 사육된 소는 지난 18개월 동안 모두 소비되었다.

표 1 호주의 소 사육과 쇠고기 생산 및 수출 전망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8	
				물량	전년대비 증감률	물량	전년대비 증감률	물량	2013년 대비 증감률
사육 마릿수(천 마리)	27,550	28,506	29,000	28,250	-2.6%	27,500	-2.7%	28,350	0.4%
도축 마릿수(천 마리)	8,289	8,046	7,977	9,110	14.2%	8,300	-8.9%	8,650	-5.0%
평균 도체 중량(kg)	278.5	287.3	287.5	278.0	-3.3%	280.0	0.7%	283.0	1.8%
쇠고기 생산량(천 톤)	2,133	2,129	2,152	2,363	9.8%	2,169	-8.2%	2,270	-4.0%
쇠고기 수출량(천 톤)	922.8	949.2	963.8	1,099.8	14.1	1,020	-7.3	1,050	-4.5%

주: 쇠고기 수출량은 선적기준임

자료: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A(Department of Agriculture, Australia), MLA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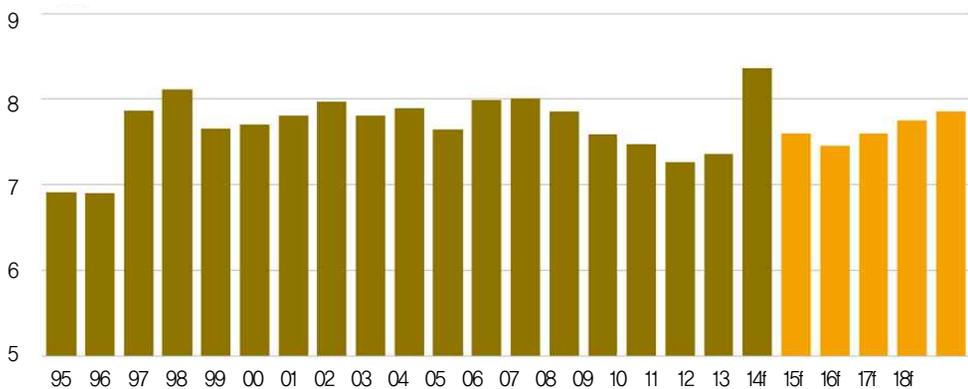
3.2. 도축

2013년 가뭄으로 소 사육 마릿수 및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2014년 비육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9.1% 감소한 760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4년 도축 전망치는 2013년(836만 마리)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13년의 도축 마릿수가 이전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 평균 도축 마릿수인 770만 마리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3년 가뭄과 조기 도축의 영향으로 2014년 가공업계에서는 도축 가능한 소를 확

그림 3 호주의 도축 마릿수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마리



주: 는 MLA 전망치를 의미함

자료: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MLA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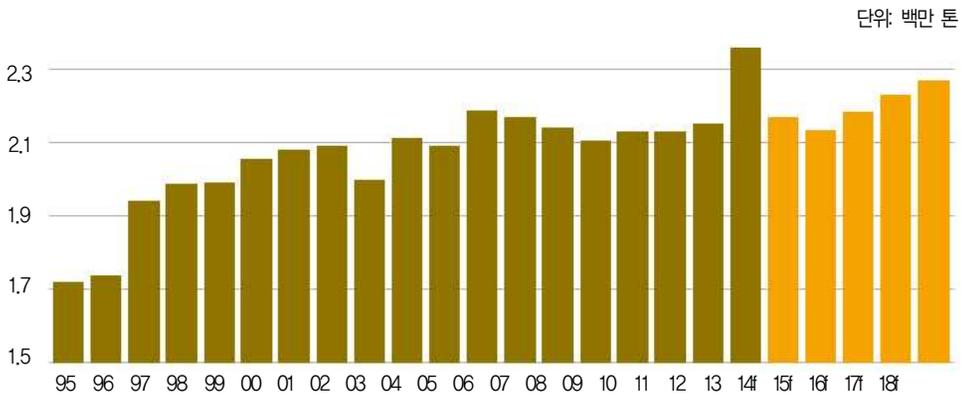
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2013년은 가축의 폐사율이 높고, 고기소로 출하하기 위한 적절한 중량까지 사육된 소가 부족하여 쇠고기 공급을 위한 사육 마릿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하반기 이후에는 쇠고기 공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도축 마릿수는 745만 마리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4~2015년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도축 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사육 마릿수가 2016년부터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까지 도축이 점차 증가하여 785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3. 쇠고기 생산

2014년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 감소로 전년 대비 크게(8.2%) 감소한 217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년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2013년 쇠고기 생산량은 236만 톤으로 2012년 대비 10% 늘어 지난 10년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호주축산공사는 2015년 쇠고기 생산량을 213만 5천 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보다 23만 2천 톤이 감소한 것이다. 이후 기후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2018년까지 쇠고기 생산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4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 전망



주: e는 추정치이며, n은 MLA 전망치를 의미함.
 자료: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MLA 전망치.

호주축산공사에서는 2013년 가뭄으로 도체중이 감소하고 암소 도축 마릿수가 증가하였으며, 평균 도체중은 마리당 278kg까지 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균 도체

중이 2012년 수준(287kg)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소의 평균 도체중은 전년에 비해 0.7% 증가한 마리당 280kg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5 호주의 성체 도축 중량 변화 추이



주: 15는 MLA 전망치를 의미함.

자료: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MLA 전망치.

4. 호주 쇠고기 수출 전망

4.1. 수출 동향과 전망

호주산 쇠고기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으로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호주는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육류 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판매를 확대하면서 시장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호주는 소 도축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외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3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10만 톤이었다.

일본과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이 증가한 데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중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급증(전년 대비 371% 증가)하면서 중국이 일본,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호주의 쇠고기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2 호주의 쇠고기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t)	
						수출량	증감률
일본	356.6	356.2	342.2	308.5	288.8	270.0	-7%
미국	251.5	185.0	167.8	224.1	212.7	210.0	-1%
한국	115.5	124.1	146.4	126.0	144.4	120.0	-17%
캐나다	12.3	6.9	10.1	15.7	17.9	15.0	-16%
대만	31.3	30.8	36.7	38.3	35.7	33.0	-8%
동남아시아	85.9	88.8	87.2	85.2	97.2	104.0	7%
인도네시아	85.9	88.8	87.2	85.2	39.4	50.0	27%
필리핀	51.8	48.4	39.6	27.1	27.0	27.0	0%
싱가포르	17.0	19.2	21.0	25.7	10.6	8.0	-24%
말레이시아	7.5	7.6	9.7	14.1	15.9	16.0	0%
태국	8.0	11.7	14.4	15.5	4.3	3.0	-30%
기타 아시아	12.8	12.6	16.6	39.2	159.9	159.0	-1%
홍콩	1.6	1.8	2.5	2.8	5.1	4.0	-21%
중국	12.8	12.6	16.6	39.2	154.8	155.0	0%
동유럽 및 CIS	15.2	56.7	55.9	35.2	30.5	20.0	-34%
EU	9.2	9.8	12.8	14.9	19.8	21.0	6%
중동	15.8	24.3	32.1	31.4	61.0	45.0	-26%
기타	21.3	27.4	41.3	45.3	31.7	21.0	-34%
합계	927.3	922.8	949.2	963.8	1,099.5	1,020.0	-7%

주: 2013년은 MLA 전망자료이며, 동유럽 및 CIS(독립국가연합)에는 폴란드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DA(<http://www.daff.gov.au/>),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2013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28만 9천 톤(전년 대비 6% 감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로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수출도 전년 대비 5.1% 감소한 21만 3천 톤이었다. 미국의 저렴한 육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호주산 쇠고기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 증가가 호주산 쇠고기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중국 수출은 2012년 8월 이후 급증하여 2013년 기준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전년 대비 371% 증가한 15만 5천 톤이었다.

2014년 호주산 쇠고기 수요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수입 증대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호주의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여 2014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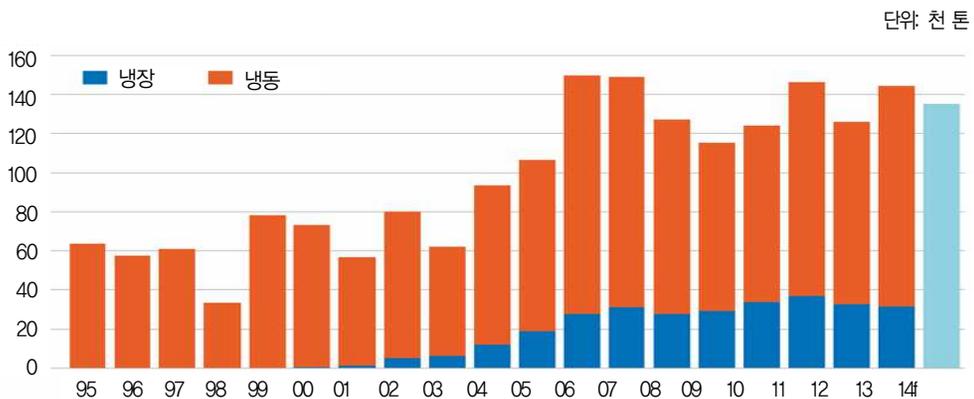
출량은 2013년 110만 톤보다 7.3% 감소한 102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의 전망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2013년이 가뭄의 영향으로 도축 마릿수가 평년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4.2. 호주산 쇠고기 수입국별 동향

4.2.1. 한국

2013년 호주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은 당초 예상보다 많아 전년 대비 15% 증가한 14만 4천 톤이었다(수입검역 기준). 미국산 쇠고기가 관세율에서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음에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년보다 4%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2013년 수출량 중 냉장 쇠고기는 3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으나, 냉동 쇠고기 수출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11만 3천 톤으로 나타났다. 한국 시장에서 호주산은 미국산 쇠고기와 지속적으로 경쟁해야 하고 중국에서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선호 증가로 2014년에 대 한국 수출량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12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6 호주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



주: 선적 중량 기준이며, 14는 MLA 추정치임.

자료: DA(<http://www.daff.gov.au/>),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호주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에 대한 변수로 한·미 FTA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의 낮은 관세율과 한국 내 한우고기 공급증가에 의한 호주산 쇠고기 수요 감소를 들고 있다. 한국의 육류 공급 증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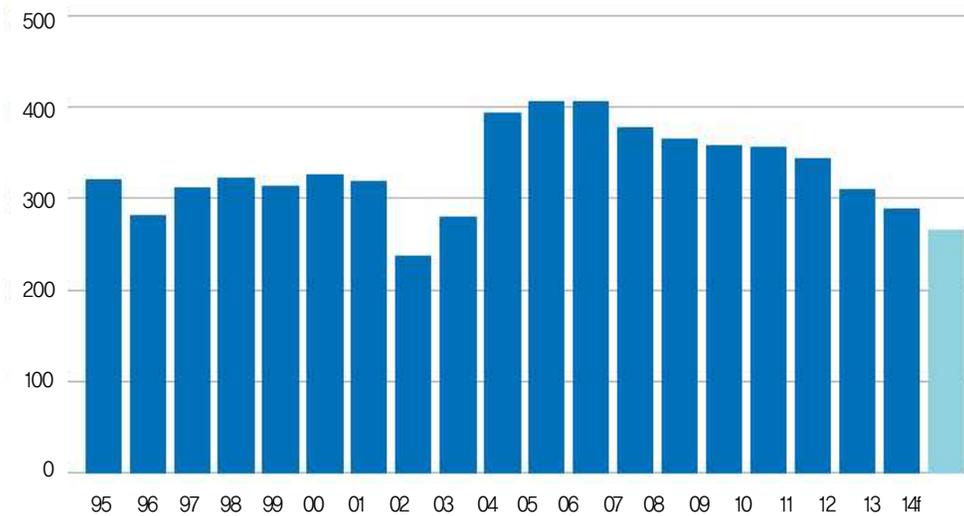
마트 할인행사 등과 같은 소비확대를 통해 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호주산 쇠고기의 수출량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2.2. 일본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 수출량은 2013년 28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하였다. 일본에서 광우병(BSE)이 발병하여 일본 내 쇠고기 소비가 침체되었던 2002년~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미국 달러 대비 호주 달러의 환율이 상승하여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호주산 비육우 수입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림 7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 수출량

단위: 천 톤



주: 선적 물량 기준이며, '14는 MLA 전망치임

자료: DA(<http://www.daff.gov.au/>),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일본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30%가 가공용이었으나, 미국 및 신규 시장 등의 경쟁으로 가공용 쇠고기 수출이 감소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미국이 가목으로 호주산 가공용 쇠고기 수입을 늘리면서 미국 수출용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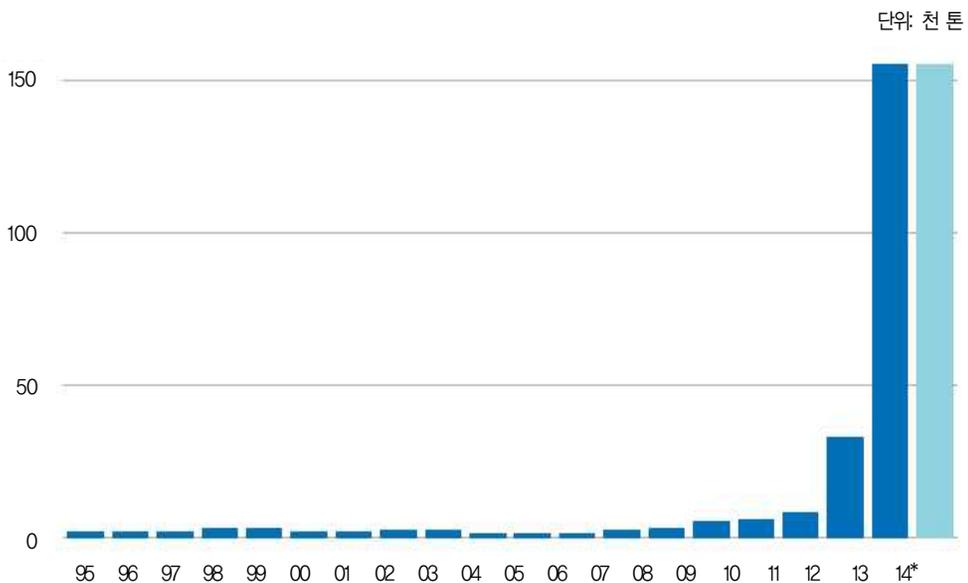
였고, 이는 대 일본 쇠고기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2012년 말부터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입업자가 호주산 쇠고기의 매입량을 줄인 것도 쇠고기 수출 감소 원인이 되었다.

2014년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 수출은 전년보다 7% 감소한 27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와의 경쟁 심화와 일본의 경기 침체, 호주 내 공급 물량 감소, 중국 등과 같은 다른 수출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호주산 쇠고기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2.3. 중국

호주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이 급증하여 2012년 기준 3만 3천 톤으로 2011년 대비 4.2배 증가하였다. 이후 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호주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량은 전년 대비 371% 증가한 15만 4,800톤이었다.

그림 8 호주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량



주 : 선적 물량 기준이며, '14는 MLA 전망치임
 자료: DA(<http://www.daff.gov.au/>),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호주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이 증가한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 및 소득 향상으로 중국 내 육류 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내 육류 유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유통경로의 확대, 중국 내 소 사육 마릿수 감소 및 육류 가격 상승,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 국민의 관심 고조와 이에 따른 수입품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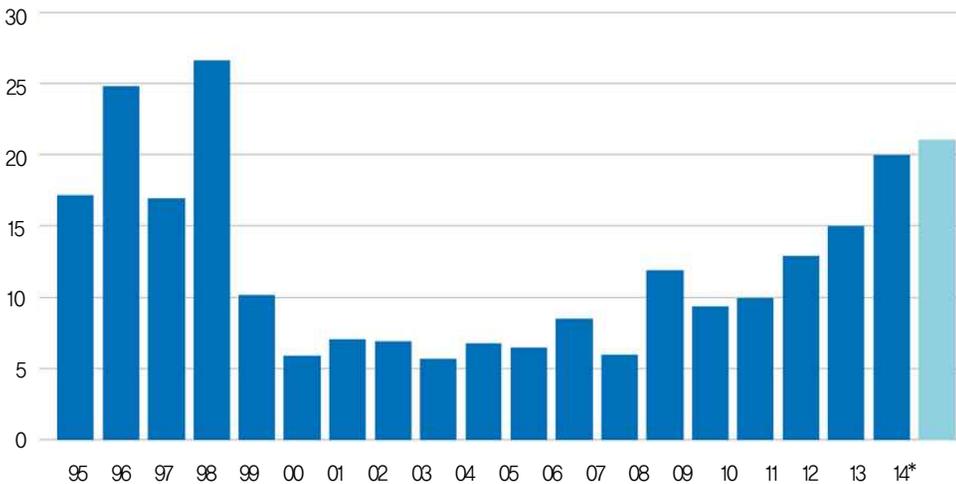
2014년 호주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량은 15만 5천 톤으로 전망되나,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경쟁에서 열세에 있고 브라질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 재개 등으로 수출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2014년 상반기에 브라질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호주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가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수출량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다.

4.2.4. EU

2014년 호주산 쇠고기의 EU 수출량은 전년보다 6% 증가한 2만 1천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EU의 곡물 비육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최근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9 호주산 쇠고기의 EU 수출량

단위: 천 톤



주: 선적 물량 기준이며, *는 MLA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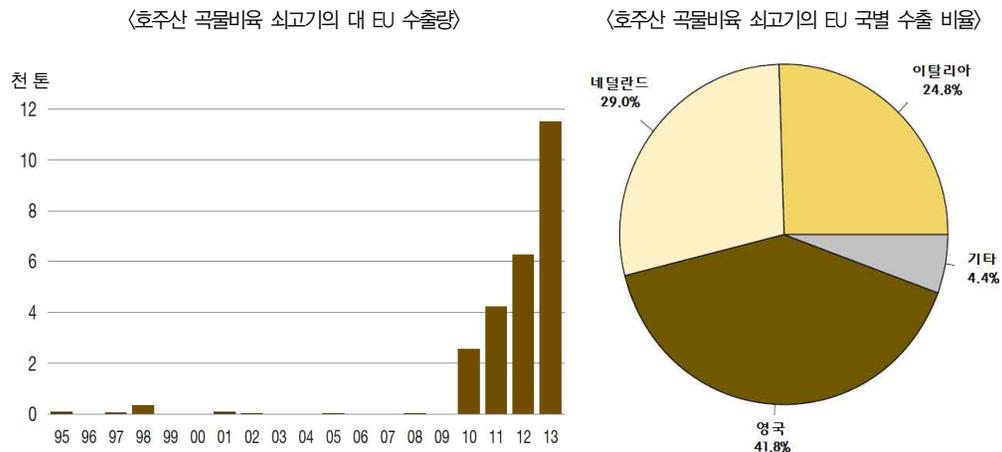
자료: DA(<http://www.daff.gov.au/>),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대(對)EU 쇠고기 수출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수출량은 전년보다 33% 증가한 19,927톤이었으며, 그 중 곡물 비육 쇠고기 비중은 약 50% 수준

인 1만 1,000톤이 수출되었다. 최근 EU에서는 호주산 곡물 비육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U의 쇠고기는 대부분 젓소 비육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호주의 곡물 비육 쇠고기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호주는 곡물 비육우에 대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

2013년 EU 회원국 중 호주산 쇠고기 수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전체 물량 중 41.8%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영국 수출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호주의 수출 대상국 다양화를 위한 노력으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새로운 수출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2013년 EU 회원국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영국 다음으로 네덜란드 29.0%, 이탈리아 24.8% 순이다.

그림 10 호주산 곡물비육 쇠고기의 국가별 수출비율



자료: DA(<http://www.daff.gov.au/>),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4.2.5. 중동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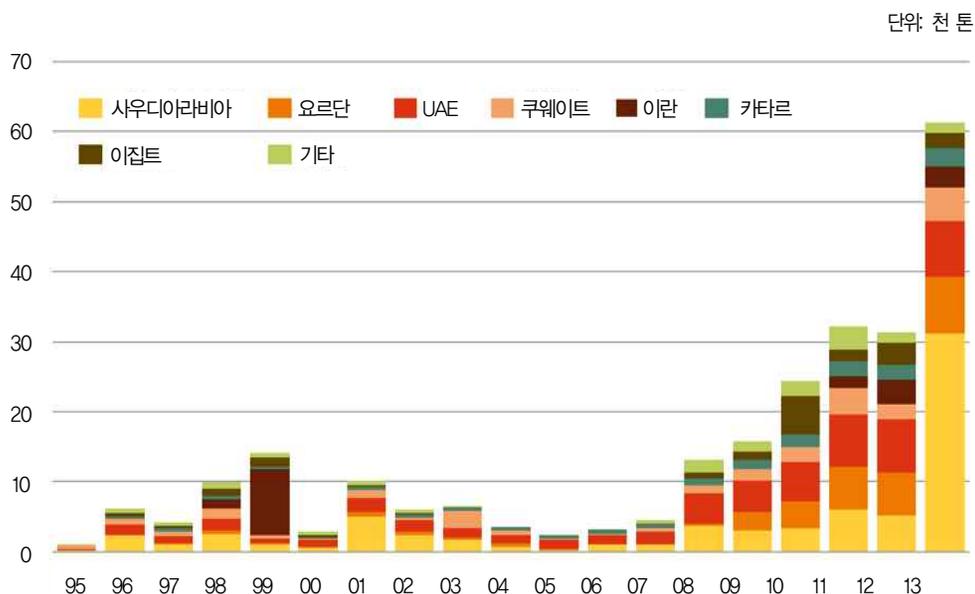
2013년 호주산 쇠고기의 중동국가 수출물량은 전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은 전년 대비 6배 증가하였다. 일본 등 기존 수출국의 물량이 감소하는 중에 중동의 수출 확대는 호주산 쇠고기 수출산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호주산 쇠고기의 중동 수출량은 4만 5천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3년 6만 1천 톤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수출은 200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2년 말 브라질의 BSE

발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2013년부터 수출이 급증하였다.

2014년 중동 수출의 변수는 브라질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이다. 브라질산 쇠고기의 재수입에 대한 공식발표는 아직 없으나 2014년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입이 재개될 시 호주의 쇠고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것은 냉동 쇠고기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곡물비육 호주산 냉장 쇠고기는 고품질로 인식되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1 중동 국가별 호주산 쇠고기 수출량



자료: DA(<http://www.daff.gov.au/>),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5. 결론

호주는 가뭄의 영향으로 목초지 사육조건이 악화되면서 비육장 입식 마릿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입식 마릿수는 87만 3천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였다. 이는 향후 몇 달간 호주의 곡물 비육 쇠고기 생산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호주산 곡물비육 쇠고기의 가장 큰 시장은 일본이며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으나, 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출량은 감소세에 있다. 이에 호주는 최근 곡물비육 쇠고기의 수출 대상국을 중국, EU, 중동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달러에 비해 전년 대비 평균 15% 낮은 호주 달러의 약세로 호주산 쇠고기의 수출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호주축산공사에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새로운 수출국의 물량 확대로 2013년 쇠고기 수출량을 100만 톤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미국의 수출 물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수출시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출 시장이 향후 호주의 쇠고기 수출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호주는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EU와 러시아 수출은 미국 달러 대비 호주 달러의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의 쇠고기 산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호주 달러의 강세로 미국, 브라질, 인도 등 다른 쇠고기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열세였으며, 주요 수출국인 한국, 일본 등에서 수요 정체로 어려운 시기였다. 또한, 2012년부터 가뭄으로 사육환경이 악화되면서 도축 마릿수의 증가로 쇠고기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중국·중동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의 개척으로 이러한 상황을 잘 넘겨왔다. 호주 쇠고기 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큰 문제없이 잘 넘긴 것은 그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더욱이 호주 정부는 아시아의 수출시장을 확대·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새로운 시장은 호주의 공급능력 보다도 더 빠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어 향후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정민국. 2005. “호주의 쇠고기 생산과 수출 동향.” 「농촌경제연구」 제28권 1호.
최정섭, 임송수. 1996. 「호주의 밀·쌀·쇠고기 산업」. D1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 외. 2005. 「축산물 생산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MLA. 2014. 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MLA. 2013. 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Mid-year update.

참고사이트

- 일본농림수산성 (www.maff.go.jp)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www.ekapepia.com)
호주검역청 (www.daff.gov.au)
호주축산공사 (www.mla.com)